

2014 3.30 사순 제 4 주일

제 1 독서 : 사무엘 상 16,1-6-7.10-13 <다윗이 이스라엘 임금으로 기름부음을 받다.>

제 2 독서 : 에페소 5,8-14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비추어 주시리라.>

복 음 : 요한 9,1-41 <또는 9,1.6-9.13-17.34-38>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앞을 보게 되어 돌아왔다.>



베이커스필드 성클레멘테성당 : 본당 주임신부 전흥식 요아킴

오늘 1 독서와 2 독서, 복음을 통털어서 보게되면 빛에 대하여, 그리고 보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바로 나는 너희들 사람들이 보는것과는 달리 **걸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속마음을 본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들은 걸모습 만을 보기 때문에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비싼 시계, 비싼 목걸이, 비싼 귀걸이, 명품들로 치장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의 속마음도 그렇게 명품으로 둘러치고 있는지? 이 사순시기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의 2 년여에 걸쳐서 법정 스님의 책을 거의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천주교 신부님들이 불교스님들과 자주 대화를 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가르침에 공통점이 많기 때문이지요. 그 끝은 다르지만, 그 끝에 도달하기 위하여 인간이 따르고 취해야 하는 방법이 비슷하게 조명되고, 제시되고 있습니다. 인간은 역사를 되풀이 합니다. 모든 사람이 어떤 문화권에 속해 있던 그 인간의 본성은 바뀔 수가 없다는 것을 제가 책을 읽으면서, 철학을 공부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우리의 인생 오십년, 백년을 전에 살았던 사람들과 거의 비슷하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종교들의 가르침은 한결같이 인간의 본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의 세상은 바로 인간이 다시 탄생을 거듭하며, 지속적인 번뇌를 통해서 완전히 깨끗해졌을 때에 그 열반의 세계인 극락에로 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한번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면 다시 나오질 않습니다. 바로 우리 천주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천당으로 가는 것이지요. 그 극락의 개념은 부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후대에 발전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불교는 종교가 아니라 철학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종교로 발전시켜 놓은 것이 보살이라는 신적인 존재가 불교사상에 나타나면서 종교화되고 거기에 극락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천주교의 가르침하고 불교의 일반적인 가르침은 거의 비슷합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불교에서는 자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용서가 없고, 자기 번뇌를 통해서 새로운 가르침을 찾아 나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크신 은총의 선물로서, 그 은혜로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오늘 말씀의 요점은, 하느님께서서는 우리 인간 처럼 겉모습을 보시지 않고 마음 속을 꿰뚫어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영적인 것을 꿰뚫어 볼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로 신앙이 없으면 인간은 과학을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 젊은 세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현상이지요. 그 과학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는 것을 중요시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가 보고 있는것이 사실이라고 증명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진리라고 증명 할 수 없는 것이 과학입니다. 참 재미있는 현상이지요. 과학의 내면을 조금만 들여다보게 되면 오늘의 정설이 내일은 정설이 아닙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보는 태양이 동쪽에서 뜨는 것은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정설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속에서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정신 나간 소리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허지만 종교에서 믿는 진리는 어디에 갖다 놓아도 변하지 않는 것 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 입니다. 그런데 종교에서 믿는 진리는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 즉 정신세계를 이용하여야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진리는 없다고 주장하는 철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의 진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세상에는 진리가 없다는 그 진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만큼 우리 인간은 한계되어지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다시 강론의 본론으로 되돌아 갑니다. 오늘 눈 먼 장님을 예수님께서서는 침을 뱉고 흙을 개어 눈에 발라 주십니다. 그 당시에는 눈병이 생겼을 때에 사람의 침으로 눈병을 고쳐 준다는 치료방법이 그 사회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쳐주는 행위를 안식일에 하였다고 유대인들이 트집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공격하기위한 구실로 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것이 눈먼 사람이 눈을 떴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아집에 의해서 영적인 눈이 막혀 버린 것입니다. 저역시도 본당안에서 때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통하여 “우리 신부님 짝 막혔어!” 하는 불평을 듣곤 합니다. 그것처럼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생각과 믿음에 짝 막혀서 하느님의 아들 메시아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즉 진리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역설적으로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에게 크나큰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은 무엇이나 하면, 어떻게 말하면 하느님을 능가 할 수도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하느님을 능가 하였을 때에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고통, 절망 그것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하느님께로 부터 받은 가르침과 은총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희망입니다. 인간은 희망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더 앞으로 조금 더 나아가면 우리가 하느님께 배울게 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또한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희망과 사랑! 그것이 없다면 우리의 삶에는 즐거움이 없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없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이 두가지를 성취할 수 있는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희망을 찾고, 사랑을 느끼는 것 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면 ?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하느님께서 세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은총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은총이 나에게 믿음의 힘을 크게 해서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가르침이 나에게 희망이 되어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바로 천당의 삶을 앞당겨 살아 가는 것입니다. 나의 변화, 내 자신이 변화하여야 한다는 것!** 하느님께서서는 우리 이웃들과 대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하여야만 한다는 이유를 보여 주십니다. 왜냐?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보고 이를 이해하고 찾아 나가는 것은 바로 “나” 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려지지않고, 내가 찾지않고, 내가 흔들려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진짜 벼락이 내 머리위에 떨어져도 모릅니다. 그만큼 우리는 슈퍼맨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슈퍼맨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의 미래는 무엇 일까요? 절망이라는 것, 고통이라는 것 그 외에는 없습니다. 내 주먹을 믿고, 내 재산을 믿고 살아온 우리 자신에게는 불안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지켜야 되는 걱정, 잘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걱정들 때문이지요. 그렇지만 **내 자신을 주님께 의지하면서 하루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 간다면, 고통중에도 희망을 얻고 고통중에도 희열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미사 중에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 보십시오. 과연 이 사순시기에 나의 영적인 삶이 변하고 있는지? 나의 신앙의 눈이 빛을 발하고 있는지? 또 주님의 용서와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사는지? 한번 이 미사중에 묵상하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윗이 이스라엘 임금으로 기름부음을 받다.>

사무엘기 상권의 말씀입니다. 16,1 ㄱㄹㅇㅂ.6-7.10-13 ㄴ

그 무렵 1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떠나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사이에게 보낸다. 내가 친히 그의 아들 가운데에서 임금이 될 사람을 하나 보아 두었다."

이사이와 그의 아들들이 6 왔을 때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주님의 기름부음받은이가 바로 주님 앞에 서 있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7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겉모습이나 키 큰 것만 보아서는 안 된다. 나는 이미 그를 배척하였다. 나는 사람들처럼 보지 않는다.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는 대로 보지만 주님은 마음을 본다."

10 이사가 아들 일곱을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사이에게 "이들 가운데에는 주님께서 뽑으신 이가 없소." 하였다. 11 사무엘이 이사이에게 "아들들이 다 모인 겁니까?" 하고 묻자, 이사는 "막내가 아직 남아 있지만,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사무엘이 이사이에게 말하였다. "사람을 보내 데려오시오. 그가 여기 올 때까지 우리는 식탁에 앉을 수가 없소." 12 그래서 이사는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왔다. 그는 볼이 불그레하고 눈매가 아름다운 잘생긴 아이였다. 주님께서 "바로 이 아이다. 일어나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13 사무엘은 기름이 담긴 뿔을 들고 형들 한가운데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다윗에게 들이닥쳐 그날부터 줄곧 그에게 머물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시편 23(22),1-3 ㄱ.3 ㄴㄷ-4.5.6(◎ 1)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으라.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으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 돋우어 주시네. ◎

○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길로 이끌어 주시네.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 저에게 위안이 되나이다. ◎

○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 주시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시다. ◎

○ 제 한평생 모든 날에,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리니,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비추어 주시리라.>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말씀입니다. 5,8-14

형제 여러분, 8 여러분은 한때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주님 안에 있는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9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로움과 진실입니다. 10 무엇이 주님 마음에 드는 것인지 가려내십시오. 11 열매를 맺지 못하는 어둠의 일에 가담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십시오. 12 사실 그들이 은밀히 저지르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입니다. 13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모두 빛으로 밝혀집니다. 14 밝혀진 것은 모두 빛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자는 사람아, 깨어나라.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비추어 주시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앞을 보게 되어 돌아왔다.>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9,1-41<또는 9,1.6-9.13-17.34-38>

짧은 독서를 할 때에는 <> 부분을 생략한다.

그때에 1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2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 누가 죄를 지었기에 저이가 눈먼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저 사람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3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저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느님의 일이 저 사람에게서 드러나려고 그리된 것이다. 4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우리는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이제 밤이 올 터인데 그때에는 아무도 일하지 못한다. 5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6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땅에 침을 뱉고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 사람의 눈에 바르신 다음, 7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 하고 그에게 이르셨다.

'실로암'은 '파견된 이'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그가 가서 씻고 앞을 보게 되어 돌아왔다.

8 이웃 사람들이, 그리고 그가 전에 거지였던 것을 보아 온 이들이 말하였다. "저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이가 아닌가?" 9 어떤 이들은 "그 사람ियो."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아니오. 그와 닮은 사람ियो." 하였다.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10 그들이 "그러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하고 묻자, 11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신 다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 하고 나에게 이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12 그들이 "그 사람이 어디 있소?" 하고 물으니, 그가 "모르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13 그들은 전에 눈이 멀었던 그 사람을 바리사이들에게 데리고 갔다. 14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흙을 개어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 주신 날은 안식일이였다. 15 그래서 바리사이들도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다시 물었다. 그는 "그분이 제 눈에 진흙을 붙여 주신 다음, 제가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16 바리사이들 가운데에서 몇몇은 "그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느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오." 하고, 어떤 이들은 "죄인이 어떻게 그런 표정을 일으킬 수 있겠소?" 하여, 그들 사이에 논란이 일어났다. 17 그리하여 그들이 눈이 멀었던 이에게 다시 물었다. "그가 당신 눈을 뜨게 해 주었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그분은 예언자입니다."

<18 유다인들은 그가 눈이 멀었었는데 이제는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앞을 볼 수 있게 된 그 사람의 부모를 불러, 19 그들에게 물었다.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다는 당신네 아들이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게 되었소?" 20 그의 부모가 대답하였다.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라는 것과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다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21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해 주었는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나이를 먹었으니 제 일은 스스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22 그의 부모는 유다인들이 두려워 이렇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면 회당에서 내쫓기로 유다인들이 이미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23 그래서 그의 부모가 "나이를 먹었으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하고 말한 것이다.

24 그리하여 바리사이들은 눈이 멀었던 그 사람을 다시 불러,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시오. 우리는 그자가 죄인임을 알고 있소." 하고 말하였다. 25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 제가 눈이 멀었는데 이제는 보게 되었다는 것은 압니다." 26 "그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소? 그가 어떻게 해서 당신의 눈을 뜨게 하였소?" 하고 그들이 물으니, 27 그가 대답하였다.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은 들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째서 다시 들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다는 말씀입니까?"

28 그러자 그들은 그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말하였다. "당신은 그자의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요. 29 우리는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아오. 그러나 그자가 어디에서 왔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오."

30 그 사람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분이 제 눈을 뜨게 해 주셨는데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에서 오셨는지 모르신다니, 그것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31 하느님께서서는 죄인들의 말을 들어 주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누가 하느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실천하면, 그 사람의 말은 들어 주십니다. 32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해 주었다는 말을 일찍이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33 그분이 하느님에게서 오지 않으셨으면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34 그러자 그들은 "당신은 완전히 죄 중에 태어났으면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는 것이오?" 하며, 그를 밖으로 내쫓아 버렸다.

35 그가 밖으로 내쫓겼다는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서는 그를 만나시자, "너는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하고 물으셨다. 36 그 사람이 "선생님,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제가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자, 37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는 사람이 바로 그다." 38 그는 "주님, 저는 믿습니다." 하며 예수님께 경배하였다.

<39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보지 못하는 이들은 보고, 보는 이들은 눈먼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40 예수님과 함께 있던 몇몇 바리새이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우리도 눈먼 자라는 말은 아니겠지요?" 하고 말하였다. 41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눈먼 사람이었으면 오히려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가 '우리는 잘 본다.' 하고 있으니, 너희 죄는 그대로 남아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